

## 김태오의 아동문학 연구

최명표\*

### 차례

1. 서론
2. '조선적 문학'의 추구
  - 2.1. '천진'과 '현실'의 동화적 조율
  - 2.2. '조선의 색채와 조선혼'의 논리
3. 결론

### 1. 서론

소년운동은 대한제국기에 출현하여 3·1독립만세운동 이후에 광주와 안변 등지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방정환이 소년운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각 지역에서 소년운동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다. 소년운동은 지역에서 경성으로 확산된 독특한 변혁운동이었다. 지역의 소년운동가들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 여러 가지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동화회와 독서회 등이다. 이런 집회와 모임은 소년들에게 읽혀줄 독물을 필요로 하기 마련이었고, 소년운동가들은 소박하나마 아동문학 작품을 창작하여 그에 부응하였다. 이 무렵의 신문을 검색해보면, 거주 지역이나 소년회를 병기한 작품을 상당수 접할 수 있다. 이처

\*전주교육대학교 강사, fooll222@chol.net

럼 1920년대에 본격적으로 아동문학이 형성된 배후에는 소년운동이 자리 잡고 있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이 사실을 간과하거나 논외로 취급함으로써, 아동문학의 장을 협소화시켰다. 한국의 아동문학사에서 소년운동가들이 점한 비중은 만만치 않은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주목하지 않으면 한국의 아동문학이 방정환의 등장, 곧 『어린이』의 창간과 함께 본궤도에 올랐다는 투박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런 관점은 현단계에서 검토하기 용이한 잡지 매체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자세가 필연적으로 봉착하게 되는 오류이다.

이런 측면에서 소년운동가들의 문학 활동을 추적하는 일은 유의미하다. 그들은 문맹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식민지의 현실을 타개할 목적으로 소년회와 독서회 등을 조직하였고, 수시로 동화회를 개최하여 소년들에게 독물의 접근 기회를 제공하였다. 말하자면 한국의 아동문학은 소년운동가들에 의해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 덕분에 소년들은 근대 ‘문학’의 실제적 모습과 처음으로 대면할 수 있었다. 곧, 소년운동은 “문학이 사회적 제도로 정착하는 과정에 관여하여 작가-독자의 출현과 문학작품의 생산-소비에 두루 상관하였다”<sup>1)</sup>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처럼 명료한 사실을 도외시키고 나면, 아동문학의 형성 과정에 대한 논의를 명망가 위주로 진행하는 실수를 재범하게 된다. 지금까지 제출된 아동문학의 사적 연구들이 미완의 기획에 그치게 된 이면에는 연구자의 출발점 행동이 잘못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저간의 사정을 1988년 남월북 작가들에 대한 해금 조치가 단행되기 전까지 프롤레타리아문학에 대한 논의를 금기시했던 정치적 상황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맞지 않다. 왜냐하면 일반문학사의 경우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이념의 대립에 따라 문학적 논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도 연구는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곧, 아동문학 연구상의 문제점은 연구자들의 출발점 행동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사실에서 찾아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연구의 외연을 넓히고 내용을 심화

1) 최명표, 「전북지역 아동문단의 형성 과정」, 『전북지역아동문학연구』, 청동거울, 2010, 16쪽.

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하지 않은 작가들을 정당하게 평가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김태오(金泰午, 1903~1976)처럼 연구자들에게 외면된 경우도 드물다. 그는 한국 아동문단의 형성 과정을 증언할 수 있는 작가로서, 특히 소년운동과 아동문학 간의 상관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그는 1920년대 식민지 사회운동의 한 축이었던 소년운동에 복무하면서 지역의 변혁운동을 주도한 운동가였다. 이 기간에 그는 동요를 위시한 여러 장르에 다량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그는 활발한 문학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문학사적으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김태오가 최초로 발표한 작품은 지우의 사망 소식을 듣고 애절한 심경을 토로한 수필 「고 K군을 추억함」(『동아일보』, 1926. 1. 29)이다. 그 뒤로 그는 문학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순서는 대부분의 작가들처럼 아동문학에서 성인문학으로 나아가는 경로를 밟았다. 그것이 나뉘는 시기는 중첩되지만, 대략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1932년경이다. 이 무렵부터 그는 시와 평론을 발표하고 시집을 발간하는 등, 아동문학과는 점차 거리를 두면서 해방을 맞았다. 그가 해방 후 대학교육에 진력하는 통에 문단 활동과 거리를 두어 문학적 접근 기회가 적었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금까지 그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김태오의 아동문학 중에서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동요론<sup>2)</sup>과 소년운동론<sup>3)</sup>을 제외하고 검토할 계획이다.

- 
- 2) 김태오의 동요론은 「동요 잡고 단상 (1-4)」(『동아일보』, 1929. 7. 1-4), 「동요운동의 당면 임무」(『아이생활』, 1931. 4), 「현대 동요 연구 (1-4)」(『아이생활』, 1932. 7-10), 「동요 짓는 법—동요 작법」(『설강동요집』, 한성도서, 1933), 「동요 예술의 이론과 실제 (1-5)」(『조선중앙일보』, 1934. 7. 1-5), 「조선 동요와 향토예술 (상-하)」(『동아일보』, 1934. 7. 9-12) 등이다. 김태오의 동요 작품들은 『설강동요집』(한성도서, 1933)과 시집 『초원』(청색지사, 1939)에 집성되어 있다. 이에 관해서는 별고를 기약한다.
- 3) 김태오가 발표한 소년운동론은 「전조선소년연합회 발기 대회를 앞두고 일언함 (1-2)」(『동아일보』, 1927. 7. 29-30), 「정묘 일년간 조선 소년운동—기분운동에서 조직운동에 (1-2)」(『조선일보』, 1928. 1. 11-12), 「소년운동의 지도 정신 (상-하)」(『중외일보』, 1928. 1. 13-14), 「소년운동의 당면 과제—최청곡 군의 소론을 박함

## 2. '조선적 문학'의 추구

### 2.1. '천진'과 '현실'의 동화적 조율

김태오는 3·1독립만세운동 직후 광주에서 소년운동을 시작하였다.<sup>4)</sup> 이것은 경성에서 방정환이 어린이날 행사를 기획하기 전에 천도교소년회를 결성하던 1921년보다 앞선 것이다. 그의 선편은 소년운동을 지역사회의 변혁운동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견인하며, 종래에 제출되었던 소년운동의 기점 논의와 성격을 재고하도록 요청한다. 그의 운동 경력은 소년회 활동에서 신간회 광주지부 활동 등으로 확대되면서 경성까지 이르렀다. 그는 경성에서 여러 운동가들과 소년운동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전력하였고, 주로 사회주의 계열의 소년운동에 관한 각종 논리를 설파하며 당대의 논객으로 격상하였다. 그 와중에서도 김태오는 아동문학의 창작과 비평에 동참하였다. 그의 아동문학 활동은 주로 동요에 치우쳐 있는 게 사실이다. 1927년 그는 정지용 등과 조선동요연구협회를 결성하여 활발하게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동요작품의 발표와 동요론의 전개에도 열심히 참가하였다. 그의 동요론은 “서구 이론을 우리의 체질에 알맞게 흡수시켜 조직적이고 체계 있는 논리를 전개시킨 글”<sup>5)</sup>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김태오는 그밖에도 여러 동화 작품을 발표하여 빈한한 동화단을 풍요하게 수놓았다.

그는 소년운동에 투신하면서 동화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

(1-7) 『조선일보』, 1928. 2. 8-16), 「인식 착란자의 배경—조문환 군에게 여함 (1-5)』 『중의일보』, 1928. 3. 20-24), 「이론 투쟁과 실천적 행위—소년운동의 신전개를 위하여 (1-6)』 『조선일보』, 1928. 3. 25-4. 5), 「소년문예운동의 당면에 임무 (1-8)』 『조선일보』, 1931. 1. 29-2. 8) 등이다. 이에 관해서는 별고를 기약한다.

4) “1919년 여름에 광주 양과정에서 동지 10여 명이 회집하여 고고의 성을 발하여 소년단을 조직하고 씩씩한 동지를 규합한 후, 각기 임무에 당케 되어 오늘날까지 모름지기 꾸준히 싸워 왔든 것이 사실이다.—김태오, 「소년운동의 당면 과제 (4)」, 『조선일보』, 1928. 2. 12.

5) 이재철, 『세계아동문학사전』, 계몽사, 1989, 54쪽.

그의 동화관은 노양근의 동화집 『날아다니는 사람』이 “동화의 본질적 사명인 문학적 가치와 종속적 사명인 교육적 가치가 相伴되어 잇”<sup>6)</sup>다고 평한데서 볼 수 있듯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견해는 “푸로 문학은 현실 생활을 묘사함과 함께 현실 생활을 지도하는 현실적 힘(力)이 되는 것”<sup>7)</sup>이라고 주장한 바와 배치되는 듯하다. 하지만 그가 소년의 ‘천진’을 중시했던 사실을 기억해 보면, 쉬 수긍할 수 있다. 말하자면 그는 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학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신념은 소년을 ‘천사’로 파악한 소년관을 지녔으면서도, 소년운동론에서는 무산계급 소년들의 해방을 부르짖었던 바와 흡사하다. 이처럼 국면의 특성에 알맞게 자신의 신념을 융통성 있게 조절한 그였기에, 동화의 문학적 가치를 본질적 사명으로 제시할 수 있었으리라.

이런 관점에서 그가 안테르센에게 관심을 표한 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sup>8)</sup> 그는 ‘안테르센 동화’라고 표기한 「황금새」(『동아일보』, 1926. 9. 5)와 「장미의 꿈」(『동아일보』, 1926. 9. 16)을 번역하면서 동화 활동에 진입하였다. 전자는 셰익스피어의 일화를, 후자는 호머의 일화를 다룬 작품이다. 번역 작품은 역자의 문학적 신념이 개입되기 마련이란 점에서, 김태오는 예술가들의 생애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듯하다. 이 점은 그가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단체에서 간부직을 수행한 경력과는 판이하고, 동요의 예술성을 강조한 논리와 기반이 겹친다. 그의 이런 태도는 겨울에도 나막신을 신술곳은 고모의 억압 속에서도 고운 심성을 잃지 않은 소녀 메리가 선물을 받게 되고 고모를 비롯한 이웃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는 「메리의 나막신(상-하)」(『동아일보』, 1926. 12. 26-28), 자신을 사랑하는 곤궁한 형편의 선생님을 돕는 메리의 선행을 다룬 「메리 (1-3)」(『중외일보』, 1928. 7. 23-25) 등을 번역한데서도 엿볼 수 있다.

6) 김태오, 「노양근 씨의 동화집을 읽고」, 『동아일보』, 1938. 12. 27

7) 김태오, 「『문학청년』의 사회적 의의 (하)」, 『조선일보』, 1930. 4. 3

8) 김태오, 「『안테르-센』 선생 51년 祭를 맞고 (상-하)」, 『동아일보』, 1926. 8. 1-4; 「『안테르센』의 생애와 예술—그의 사후 육십오년을 당하여 (1-3)」, 『동아일보』, 1940. 8. 2-6

김태오의 창작동화 「황금 생선 (1-2)」(『동아일보』, 1926. 7. 21-22)는 분수를 지키지 못한 노부부의 말로를 다룬 작품이다. 이 동화는 어느 옛날 바닷가에서 33년 이상 어로로 일상을 영위하던 할아버지가 그물에 갇힌 황금생선을 놓아주면서 시작된다. 할아버지로부터 사연을 들은 할머니는 대노하면서, 모든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는 황금생선에게 집에 필요한 밭, 집, 정승 판서 부인, 여왕 등, 점차 요구사항을 늘려다가 모든 재산을 잃게 된다. 이 계열에 속하는 「수탉의 알 (1-3)」(『동아일보』, 1926. 8. 19-26)은 옛날 이웃에 살던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 일어난 해프닝을 다룬 작품이다. 수탉을 기르던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달걀을 나누어주기를 바라지만 번번이 거절당한다. 이에 집에서 쫓겨난 수탉이 돈주머니를 물고 와서 할아버지는 부자가 되고, 이 광경을 질투한 할머니는 돈주머니를 가져오라고 암탉을 쫓아낸다. 암탉은 거리에서 돈주머니 대신에 유리구슬을 물고 왔다가 다시 쫓겨나고, 할머니는 달걀조차 못 먹게 된다. 두 작품은 과욕으로 인한 파국을 다루어 전통적 덕목과 시적 정의에 충실하다.

김태오의 동화 중에서 주목할 작품은 「천하장사 덩도령 (1-7)」(『동아일보』, 1926. 9. 22-28)이다. 김작하다시피, 이 작품은 민간에 전래하던 정도령 이야기를 재해석한 것이다. 서울에 살던 정도령은 백마를 타고 출정한 길에서 정자나무쇠, 배사쇠, 고래사쇠, 산중의 삼형제와 의형제를 맺는다. 여섯 명의 장사들을 구하기까지의 과정이 이야기의 전개에 해당한다. 정도령이 여섯 명의 형제들과 각기 '도원의 결의'를 하기까지, 서사의 시간은 선조적으로 흐르면서 동화의 시간 규칙을 준수한다. 그 단계마다 전래담에 등장하는 초월적 장면들이 도차에 배치되어 서사의 전통을 이으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이러한 움직임은 작가가 익숙한 소재를 선택하는 순간부터 예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세심한 배려에 힘입어 정도령은 아우들과 함께 우국지사들이 간혀 있다는 대마도의 굴에 당도한다. 그의 동포 담론이 동화적 장면으로 구체화되는 순간이다.

“아! 거룩하신 신령이시여! 나라를 위하여, 동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다 죽게 된 이놈에게 한 번 더 굿세인 힘을 내려줍소서!”

하고, 정성껏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별안간 하늘로부터 이상한 서기가 뿔뿔 내려와 정 도령의 원뿔을 둘러쌌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기운은 이전보다도 몇 백배나 더 굿세인 힘이 생기여지고, 그 가치 잇든 모든 사람들도 그 전에 었든 새로운 용기가 불가치 니러났습니다.

정 도령은 그 크고 무쇠 가튼 팔뚝으로 그 큰 석굴을 힘드리지 안코 부서트리코 나와서 다시 무서운 형세로 다시 역적대장에게 드리 덤비여 기여히 그 대장을 번적 드러서 큰 바우 우에다가 내동당이를 찻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도 힘을 어더 한꺼번에 소리를 치며 나올 때, 하늘이 문혀지는 듯 땅이 썩지는 듯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역적놈들을 하로사리와 가치 업새버렸습니다. 정 도령의 부하들도 다시 그 전 제각각 가지고 잇든 힘이 배나 더하여 그 모든 역적의 부하들과 싸와서 필경에는 크게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 도령은 총사령관이 되어서 그 여섯 형대를 제비가치 날세게 지휘하여 그 대마도섬을 정복하여 모든 백성을 안정(安定)을 식히었습니다.

아! 장엄하고 의협의 용사인 그 정 도령의 소문이 얼마 아니 되어 장안에 까지 굉장히 퍼져서 필경에는 궁궐에 계신 임금님에게까지 알으시게 되었습니다.”<sup>9)</sup>

인용 작품이 지닌 문제점은 정 도령이 “나라와 동포 형대를 씌직히도 앓기는 참으로 쓰거운 인정을 가진 사람”<sup>10)</sup>이란 점이다. 이 점은 식민지 시대라는 상황을 고려할 때 파격적이고 당돌한 설정이다. 1989년 만민공동회가 개최되던 즈음부터 인구에 널리 회자되기 시작한 동포 담론은 “대외적 충분(忠憤), 대내적 애홀(愛恤)의 근거”<sup>11)</sup>라는 점에서 대항언어로서의 자질을 함의한 용어이다. 정 도령의 행위는 임금을 위한 ‘충분’의 발로

9) 김태오, 「천하장사 덩 도령 (7)」, 『동아일보』, 1926. 9. 28

10) 김태오, 「천하장사 덩 도령 (1)」, 『동아일보』, 1926. 9. 22

11) 권보드래, 「동포와 역사적 감각」,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편, 『근대계몽기 지식의 발견과 사유 지평의 확대』, 소명출판, 2006, 59쪽.

이고, 동포를 향한 '애홀'의 실천이다. 따라서 임금이 '의협'의 용사' 정 도령을 대마도 국왕으로 봉하고, 동생들을 판서에 앉히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곧, 그의 행동은 임금에 대한 충성과 동포에 대한 사랑에서 발원한 것이어서 타의 모범이 될 뿐 아니라, 널리 선양되어야 마땅한 구시대적 질서를 체현한다. 그러나 이것은 시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라져버린 왕가에 대한 충성을 회억한다는 점에서 당대적 의미를 지닌다. 김태오가 설정한 구도는 외세의 침입 이전의 질서체제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욕망의 발로이며, 구체적으로 일제가 구축한 식민 제제의 타파를 열망하고 있다. 이 점에서 그의 의도는 당대의 질서를 전복시키려는 혁명의지를 은닉하고 있으며, 그것이 정 도령이라는 초인이 출현하여 '역적놈들을 하로사리와 가치' 없애기를 갈망한다는 점에서 낭만적이다.

이 계열에 속하는 작품은 고향을 점령한 독일군의 만행에 저항하다가 죽는 프랑스 소년을 내세운 「애국의 물 (상-하)」(『동아일보』, 1926. 11. 16-17)이다. 이 작품은 겁 많은 토끼들이 '이렇듯 한 좋은 세상에 나서 한 시라도 맘 편하게 살지 못하고 단잠을 조금도 일우지 못한 우리의 신세'를 한탄하며 집단 자살하기로 결심하는 내용의 「겁쟁이 토끼」(『동광』, 1927. 5)와 다르다. 그는 토끼들을 등장시킨 작품에서는 인물의 특성에 맞게 우화 방식을 채택했다. 그리하여 토끼들이 개구리의 놀람을 보고 자신들의 겁약함을 깨닫는 장면에서 종결함으로써, 우화의 형식을 준수하고 주제의 직접적 노출을 삼갔다. 하지만 이 작품은 적군에 대한 증오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제 민족 군조에게 식수를 제공하다가 죽음을 맞는 소년을 내세울 정도로 직접적인 행동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김태오가 상이한 결말을 제시하여 주제에 대한 독자의 반응폭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독물의 형식적 요소를 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다르다.

『통—탕—』

하고, 피스틀은 연기를 풀석 내이고 총알은 발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올시다. 얼마 아니 되어 엇전 일인지 『음, 앗—』 하고



부르지드니만, 얽혀 섰든 대위가 그만 쌍에 썩꾸러졌습니다.

그런데 불란서 군조는 아모 탈업시 지금까지 심장의 고동소리가 들리며 숨을 벌덕벌덕하고, 앓가보다도 더 한층 나아갑니다.

소년은 마침내 그 독일 대위를 쏘아 넘어트렸습니다.

『야, 이놈 통 큰 놈이로군. 대위를 쏘았네 그려. 네 그 씹씩한 놈인데—』

하고, 독일 병정들은 사면으로 총삿을 그 소년에게 향하였습니다.

『자! 쏘을 테면 쏘아라.』

하고, 소년은 조금도 놀나운 빛이 업시 태연자약하게 대답하게도 서 잊었습니다.

그 도착 가튼 인정 업는 독일 병정들은 마침내 수십 발의 탄환을 너허 소년의 몸을 향하여 쏘아 벌의집(蜂窠) 가치 몸을 쫓코 나갔습니다. 그 용감스럽고 의협의 용사인 불란서 소년은 최후의 운명을 다할 때 『불란서 만세!』를 삼창하고 드디어 운명하였습니다. 이 용감한 소년의 일흔은 그 후부터 끈 임업시 살아 잇스며, 그 애국(愛國)의 피는 언제까지던지 불란서 국민의 만흔 교훈과 김흔 인상(印象)을 주고야 마렸습니다.<sup>12)</sup>

김태오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하다. 그는 에밀 베스벨이라는 소년의 무용담을 통해서 식민지의 원주민 소년들에게 항일의식을 고취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의 은밀한 욕망은 이 시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악화되는 객관적 정세에 따라 식민지의 사회운동이 정체 국면에 처하고, 소년운동의 노선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던 환경으로부터 시원하였다. 일제의 강고한 탄압에 연일 사상범들이 체포되고, 원주민들 사이에는 패배의식이 팽배해지면서 대일 항쟁 의지가 약화되고 있었다. 그에 비해 일제는 소위 '채찍과 당근'을 앞세워 동일민족 간을 이간시키며, 민족해방 전선을 와해시키는 공작을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김태오는 이런 시국의 추이를 살피면서 정 도령을 내세워 국망 이전의 상태를 회원하거나, 용기있는 소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국망 이후의 자세를 시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치 그의 동화가 지닌 주제의 편차는 넓었다.

12) 김태오, 「애국의 물 (하)」, 『동아일보』, 1926. 11. 17

그밖에 부처님을 친구처럼 생각하는 나이 많은 착한 총각이 원하던 색시를 얻게 되는 「보기 드문 총각 (1-2)」(『동아일보』, 1926. 10. 25-27), 길동이라는 심술 사나운 아이가 자신을 정성스럽게 간병하는 어머니를 보고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는 「길동의 회개 (1-2)」(『동아일보』, 1927. 2. 20-21), 정동이라는 소년이 스승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다가 보상을 받게 되는 「세 가지 선물 (1-3)」(『동아일보』, 1927. 3. 23-25) 등은 착한 심성과 행동을 주제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교훈적이다. 실 뽑는 일을 좋아하는 소녀가 임금의 부인이 된다는 「실 뽑는 색씨」(『동광』, 1927. 2)도 착한 일을 하면 보상을 받는다는 전통적 주제를 잇는 작품이다. 그 외에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개작한 「두 형제와 호랑이 (1-5)」(『조선일보』, 1929. 10. 2-8)와 '신의를 지킨 호랑이'를 개작한 「호랑이의 신의 (1-3)」(『동아일보』, 1929. 10. 10-12)에서 보듯이, 그는 전래동화의 개작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은 전래동화를 통해서 세대간의 문화 전승을 기약한다는 점에서 각별하다. 끝으로 웅이가 눈사람을 부순 친구들 얘기를 엄마에게 얘기하는 「눈사람」(『동아일보』, 1936. 1. 26)은 '유년동화'답게 유치한 수준의 작품이다. 이것은 김태오가 보육학교에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과 유년 동요를 발표했던 사실을 아울러 생각해 보면, 나이 어린 아이들에게 소용되는 독물의 필요에 따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 2.2. '조선의 색채와 조선혼'의 논리

1920년대 후반은 아동문학계에 평론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그 시기는 바야흐로 아동문학이 형성되던 때였으나, 아동문단은 이념의 대립에 따라 반목하고 분화하며 각자 활로를 개척하였다. 그것은 전적으로 문학이 정치의 하위 제도라는 생리적 지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더욱이 식민지시대라는 특수 조건은 아동문학가들에게도 반드시 인정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학의 정치적 함의를 고의적으로 외면하면서 문단은 분열할 수밖에 없었다. 이 무렵의 아동문학 평론이란 “일본을 비롯한 구미 여러 나

라의 아동문학에 관계되는 이론들을 진지한 재검토는 물론이거니와 촌부의 설명이나 주석을 보탬도 없이 자기의 것인 양 번안 도용하여 발표하는 등, 상식 이하의 행위를 자행했던 것"<sup>13)</sup>이다. 그 이면에는 1920년대 중반부터 어린이날 행사의 주도권을 놓고 다투던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반목이 자리하고 있다. 양 측의 논리가 아동문단에 그대로 이입되어 이른바 순수 아동문학과 계급적 아동문학으로 이분되었고, 그러한 양상이 비평계에도 영향을 미쳐 친교집단에 따라 감정적 평설이 난무한 실정이었다. 이것은 아직 형성 중이던 아동문학의 과도기적 상황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비평의 효용적 가치는 더 주목받아야 할 처지였다.

김태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동문학 비평에 참여하였다. 그의 관심은 소년운동론을 비롯하여 다방면에 걸쳐 있었으나, 그것들을 한데 아우르면 소년에 대한 교육문제로 귀결된다. 그것은 소년운동의 경험에서 배태된 것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으로 망국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다짐의 소산이었다. 그런 선각자적 사명감을 지닌 그였기에, 다른 논자들이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소년들을 위한 독물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예술교육론을 개진하며 이론과 실천면에서 두루 실적물을 제출하였으리라. 이런 측면에서 그가 발표한 각종 평문들은 아동문학비평사의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그는 사회주의 계열의 소년운동계에서 주요 논객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나, 평문에서는 이념을 노출하는 편보다는 중립적 관점을 견지하였다. 이처럼 독특한 입론은 그의 비평에 내포된 순수성을 과시하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문학적 기반이었다.

그가 발표한 「심리학상 견지에서 아동 독물 선택 (1-5)」(『중외일보』, 1927. 11. 22-26)는 강연차 방문했던 서북 지역의 요구에 따라 집필한 것이다. 당시는 아동문단조차 미처 형성되기 전이었으므로, 아이들을 위한 독물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3·1독립만세운동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취학률은 독서 가능 인구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이 무렵에 해마다 대략 20만명 가량의 보통학교 졸업생이 배출되었으니, 그 증가

13)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315쪽.

폭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한 예로 “1920년대의 어린이들은 개벽사의 『어린이』를 읽으면서 독서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읽고난 뒤에는 조선어 서적 중에는 별로 읽을 것이 없어서 이내 더 넓고 풍부한 일본 어책의 세계로 들어갔다”<sup>14)</sup>는 증언은 독물의 부족 상황을 짐작케 한다. 일본어 해독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순전히 일제의 관학이 제도화된 결과이다. 이 점은 민족적 견지에서 보면 큰 문제였다. 이때 김태오가 독물에 관하여 다양하게 안내한 것은 시의적이었다. 그는 독물을 정신의 양식이라고 보고, 아동의 정신 발달 정도에 따라 독물도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아동의 심리적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독물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령별로 알맞은 독물의 분야를 제시하였다.

독물로써 감화되는 힘이 가장 위대한 것이니, 아동이란 백지에 스치는 대로 선악을 굿지 안코 臆見 그대로 기억하였다가 다시금 어느 시기에 이용하게 됨으로, 사람은 선에도 강하며 악에도 강하다. 그리고 아동은 분한 기사를 읽을 때에는 의분을 일으키고 슬픔을 알며, 씩고도 닳은 기사를 볼 때에는 동정하는 눈물을 흘리게 된다. 그리고 악한 것 強蒙한 것이 패하고 정복이 되면 가장 희열하며 안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도덕적 관념과 정서적 활동을 조장시키기에 적당한 독물을 선택해야 한다.

내용은 아동에게 흥미있는 것으로…… 그러나 호기심을 조장시키며 허영심을 일으키는 비교육적 기사는 害가 적지 않다. 독물의 생명은 아동이 그 내용에 감응 여하에 있는 것이다. 또 넘우나 흥미주의로만 치우치는 독물은 교육적 의의가 말할하기 쉬운 것이다. 근일 출판물 중에는 종종 아동의 열등한 흥미 그것으로 맘을 살려고 하는 것이 많다. 이것을 판단하는데는 부형과 교사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sup>15)</sup>

김태오의 주장은 합리적이다. 그는 앞서 문학작품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감상적 기분이 농후해질 염려가 있으므로, 문학작품 외에 과학물도 충분히 권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처럼 그의 견해는 아동 정서

14)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234쪽.

15) 김태오, 「심리학상 견지에서 아동 독물 선택 (4)」, 『중외일보』, 1927. 11. 25

의 전면적 발달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그는 '민족의식이 있는 것', 곧 "좀더 조선의 기분이 있는 동화 또는 조선의 흠냄새 나는 동요"<sup>16)</sup>를 주장하여 '학대받고 짓밟히며 차고 어두운 속에서 자라나는 조선의 소년'의 정신 생활을 지도하고 완전한 인격과 충실한 역할을 양성할 수 있는 의식을 함양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의 주장은, 동화 구연 등의 일 부문에 치중하는 운동가들보다 훨씬 교육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아동에게 제시되는 다양한 독물들은 반드시 '민족의식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내세움으로써, 식민지 소년들의 정체성 형성을 전제하고 있다. 이런 관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소년들에게 함의된 정치적 성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김태오가 아동들을 도구적 태도로 파악하고, 집단적 가치의 맹목적 주입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다음같이 아동의 '천진'을 인정하고 있었다.

말도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나무토막을 가지고 싸웠다 허무했다 하는 것은 그냥 작란이 아니라, 집을 짓고 심혀하는 타고난 버릇(본능)을 가진 까닭이요, 남녀를 분간도 못하는 인형 가튼 아가씨들이 장독대 곁에서 작은 움바하고 비닭이처럼 마조 안저서 눈곱만한 그릇에 풀냄새를 담아 가지고 '너 먹어라', '아! 이 손님 잡수서' 하고 노는 것은 솟곱작란이 아니라, 장래 자라서 살림사리(가정생활)를 하려는 연극을 미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 양디씩에서 노니는 병아리처럼 혼자 종알거리든 것이 자라서 성악이 되고, 솟거명으로 벽에다가 관초를 치는 것이 자라서 미술이 되고, 마루 위에서 뛰엄박질하는 것이 무도(舞蹈)가 되고, 달 밝은 밤에 동모들이 은행나무 그늘에 모혀서 숨박꼭질을 하고 싸치잡기를 하는 것이 그냥 작란이 아니라, 커지면 연극이 되는 것이요, 그 그림자를 밝혀낸 것은 별다른 것이 아니라 활동사진(영화)입니다.<sup>17)</sup>

16) 김태오, 「심리학상 견지에서 아동 독물 선택 (5)」, 『중외일보』, 1927. 11. 26

17) 김태오, 「어린이날을 맞으며 학부매님께!」, 『중외일보』, 1929. 5. 6

이처럼 김태오는 아이들의 유희 본능을 예술적 충동으로 보고 중시한다. 그의 「예술교육의 이론과 실제 (1-5)」(『조선일보』, 1930. 9. 23-27)도 이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예술교육론이다. 그는 아동의 유희 본능을 중시하는 페스탈로치의 교육관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그가 페스탈로치의 '노동의 유희성'을 예술교육의 본질로 설정하고 피력한 예술교육관은 "우리는 현하 조선의 객관적 정세와 식민지적 특수 사정을 파악 인식하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동요, 동화, 자유화, 음악, 아동극, 영화 등—예년보다 배전의 용기를 진작하여 지금 우리네가 받고 있는 교육으로볼어 자유교육—예술교육을 환기시켜야 된다"<sup>18)</sup>고 주장할 만큼 온건하였다. 그는 예술을 '미를 창조하는 것 혹은 미의 창조를 일우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미적 교양이 적은 사람에게 '미의 판단은 실리적 또는 실질적으로 빠지기 쉽고', 미적 교양이 많은 사람은 '미적 판단은 실감적이면서도 보다 假象的'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유연한 태도로 예술의 본질적 국면을 존중하는 김태오에게 당대 아동문학의 대립적 경향은 용납될 수 없었다.

근년 소년소녀의 작품을 보면 두 가지 조류가 흘러 있습니다. 하나는 고웁게 애답게 지을려고 애타는 작품과 또 하나는 힘차게 역세게 지을려고 애쓰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마디 말할 것은 공연히 쏘릿게 멋있게 슯호고 애답게 지을려고 괴를 쓰는 헛우슴 헛눈물의 작품도 요구치 안커나와 또는 펴피 헛주목의 작품도 요구치 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조선 소년의 현실에 빚쳐어 그들의 압길에 새로운 길을 가르쳐주고, 새로운 국면을 타개할 진실한 작품을 요구합니다. 언제나 절박한 우리 소년의 생활의식에서 일어나오는 감정으로써 쓴 글—『속임 업는 노래! 참다운 글!』 이것을 제작하여야 되겠습니다.<sup>19)</sup>

김태오는 1930년대 아동문단의 두 흐름을 '고웁게 애답게 지을려고 애타는 작품'과 '힘차게 역세게 지을려고 애쓰는 작품'으로 이분한다. 말할

18) 김태오, 「소년문예운동의 당면에 임무 (7)」, 『조선일보』, 1931. 2. 8

19) 김태오, 「건설한 문학 수립」, 『조선일보』, 1933. 1. 2

것도 없이, 전자는 소위 순수아동문학 계열이고, 후자는 프롤레타리아문학 계열이다. 그는 두 경향을 동시에 비판하면서, 작가들에게 '무엇보다도 오늘 조선 소년의 현실에 빚춰어 그들의 압길에 새로운 길을 가르쳐주고, 새로운 국면을 타개할 진실한 작품'을 주문한다. 그의 요구사항은 등단 초기부터 일관되게 되풀이하여 개진된 것이다. 그가 요구하는 작품은 민족의 현실을 반영하고, 어린이들의 '천진'을 옹호할 것을 요구했던 바와 다르지 않다. 즉, 그는 "조선의 색채와 조선혼"<sup>20)</sup>을 형상화한 문학작품을 최고로 평가했거니와, 그런 작품은 '언제나 절박한 우리 소년의 생활의식에서 일어나오는 감정으로써 쓴 글'이다. 그것이 그가 앞서 주장한 향토예술이다. 이런 시대적 책임감을 망각하고 '헛우슴, 헛눈물, 헛주목'에 진력하는 경향은 기성인의 유년기 추억에 대한 단상이지, 식민지 소년들의 생활로부터 기원한 사실적 작품이 아니므로 경계할 일이었다. 이처럼 그는 항상 '지상의 진리와 선미와 자비와의 엄존을 입증할 새 천사'들에게 기성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한 비평가였다.

김태오는 일본의 니혼대학에서 유학하는 도중에 영화<sup>21)</sup>와 연극<sup>22)</sup> 등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소년문예운동의 새로운 과제로 편입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귀국한 뒤에 경성중앙보육학교 교원을 거치면서 소년운동보다 시와 평론<sup>23)</sup> 등을 발표하였다. 동시에 시로 나아간 이러한 궤적은 당대의 시인들과 흡사한 경로이다. 그렇지만 그는 일제 말에 이르러 친일시

20) 김태오, 「동요 잡고 단상 (1)」, 『동아일보』, 1929. 7. 1

21) 김태오, 「예술의 최첨단과 영화과학 (1-4)」, 『조선일보』, 1930. 2. 5-7

22) 김태오, 「연극운동의 신전개」, 『조선일보』, 1930. 2. 23

23) 김태오가 발표한 평론은 「예술의 첨단과 영화과학 (1-4)」(『조선일보』, 1930. 2. 3-7), 「『문학청년』의 사회적 의의 (상-하)」(『조선일보』, 1930. 4. 1-3), 「농민과 문예」(『동광』, 1932. 10), 「내가 존경하는 현대 조선의 작가와 외국인에게 자랑할 작품」(『중앙』, 1935. 5), 「조선 문인 서간집」(『조선문단』, 1935. 7), 「문단의 큰 손실—심혼 사망 소식을 듣고」(『사해공론』, 1936. 10), 「『현대 조선 시인 선집』」(『동아일보』, 1939. 3. 7), 「시단의 동태와 문제 (1-3)」(『동아일보』, 1940. 2. 8-13), 「卍代 시인의 고민상 (1-3)」(『동아일보』, 1940. 2. 14-16), 「생활의 탐구와 신 낭만」(『동아일보』, 1940. 2. 18), 「생의 창조와 『이미지즘』」(『동아일보』, 1940. 2. 20), 「시문학 옹호의 변 (상-하)」(『동아일보』, 1940. 2. 21-22) 등이다.

를 발표하며 이전의 신념을 확철하고 말았다.<sup>24)</sup> 그것은 당시 그가 재직하고 있었던 중앙보육학교의 운영과 연관된 것인지 모른다. 그는 당시 조선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사를 두 번에 걸쳐 방문한 바 있다. 1938년 5월에는 교무주임 자격으로 학교의 이전 인사차 방문하였고<sup>25)</sup>, 이듬해 봄에는 신문사 신축 인사차 방문하였다.<sup>26)</sup> 비록 그런 사정에 의한 것이었을지라도, 사회주의 계열의 소년운동계에서 명망가에 속하였던 그의 변절은 용납하기 힘들다. 해방 후에 그는 소년운동이나 아동문학보다는 중립적인 교육 활동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였다. 그는 중앙보육학교 소속으로 1945년 9월 10일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열린 전문대학교교육응급대책협의회를 진행하였고<sup>27)</sup>, 1949년 공보처장이 유행가보다 애국가요를 부르라는 담화와 함께 공보처에서 제정하여 발표한 소위 국민가요에 김태오 작사 「건국의 노래」가 포함되었다.<sup>28)</sup> 그 뒤에 김태오는 소속 대학의 보직을 맡으면서 점차 아동문학 작품의 발표보다는, 주로 교육론<sup>29)</sup> 등을 발표하면서

24) 김태오의 친일시는 「新年頌」(『매일신보』, 1941. 1. 9), 「東洋 平和의 門이 열리다—싱가포르 陷落의 報를 듯고」(『매일신보』, 1942. 2. 25), 「햇불 든 少年」(『매일신보』, 1942. 3. 2), 「勝戰歌」(『매일신보』, 1942. 3. 14), 「椰子樹」(『춘추』, 1942. 9) 등이다.

25) 『매일신보』, 1938. 5. 11

26) 『매일신보』, 1939. 3. 29

27) 『매일신보』, 1945. 9. 13

28) 공보처에서 발표한 국민가요는 「애국의 노래」(작사 홍순영, 작곡 박태현), 「민족의 노래」(작사 장유점, 작곡 윤용하), 「국민의 노래」(작사 염준호, 작곡 리홍렬), 「우리 날」(작사·작곡 김생려), 「자유와 종」(작사 김상대, 작곡 손봉), 「건국의 노래」(작사 김태오, 작곡 나운영) 등이다.—『한성일보』, 1949. 12. 2

29) 김태오가 해방 후에 발표한 글들은 「베르그손 철학—로맹 롤랑과 관련하여 (상-하)」(『경향신문』, 1949. 4. 17-18), 「비판의 심리 (상-하)」(『경향신문』, 1949. 11. 10-11), 「교육계의 신년 전망」(『신천지』, 1950. 1), 「시인적 체험」(『학풍』, 1950. 2), 「예술과 인생」(『백민』, 1950. 3), 「학문과 민족성」(『문학』, 1950. 6), 「민족성의 인종심리학적 고찰」(『신천지』, 1950. 6), 「대학 교육의 사명」(『신천지』, 1954. 4), 「한국 풍토와 민족성—풍토 및 성격심리학적 고찰 (상-하)」(『동아일보』, 1957. 4. 11-12), 「분트와 민족심리학—그의 탄생 百廿五週年을 기념하여 (상-하)」(『동아일보』, 1957. 10. 30-11. 1), 「삼일운동과 민족정신—기미운동에 표현된 한민족의 심리적 특징 (상-하)」(『동아일보』, 1958. 2. 28-3. 1), 「고려 자기와 민족성—고려인의 미의식의 심리적 특질 (상-하)」(『동아일보』, 1958. 4. 9-10) 등이다.



성인문단과도 거리를 두었다.

### 3. 결론

김태오는 한국 아동문단의 형성 과정을 증언할 수 있는 작가이다. 그는 이력은 1920년대의 소년운동과 아동문학의 상관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그는 소년운동의 지도자로 활동하는 동안에도, 아동문학에 대한 관심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는 동요를 비롯한 여러 장르에 걸쳐 작품을 제출하였고, 인상비평에 머물던 아동문학평론을 논리화하느라 공을 들였다. 그에 이르러 아동문학은 체계적인 이론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는 아동을 위한 책임감으로 각종 문학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였다. 그는 작품의 발표와 동요집 발간, 순회 강연회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독물이 부족한 식민지 아동들에게 문학적 향유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다가 해방을 맞았다.

그의 아동문학은 아동의 천진성을 옹호하며 출발하였다. 그는 아동의 원시적인 성정을 지켜주기에 적합한 작품을 요구하며, 식민지의 현실을 외면한 작품을 심하게 비판하였다. 이런 비평적 신념은 일제에 의해 강점된 국토를 예전의 향토로 치환시키고, 그것에 기반을 둔 문학적 형상화를 고평하도록 견인하였다. 그는 식민지라는 특수한 시대적 조건을 전제하면서, 아동들의 구체적 생활의식으로부터 우러나온 작품에 호의를 베풀었다. 이것을 일러서 '조선의 색채와 조선혼'의 논리라고 칭할 수 있거니와, 김태오의 비평적 태도는 민족문학적 차원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비평은 아동문학비평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앞으로 후속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핵심어: 김태오, 아동문학, 소년운동, 천진성, '조선의 색채와 조선혼'의 논리

<참고문헌>

<기본 자료>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외일보』

<논문 및 단행본>

권보드래, 「동포와 역사적 감각」,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편, 『근대계몽  
기 지식의 발견과 사유 지평의 확대』, 소명출판, 2006, 51-76쪽.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최명표, 『전북지역아동문학연구』, 청동거울, 2010.

<Abstracts>

## A Study on Kim Tae-oh's Theory of Juvenile Literature

Choi Myoung-pyo

This study investigated Kim Tae-oh's world of juvenile literature. He was a writer who could testify to the formation processes of juvenile literary circles in the 1920s. He had a solid status to verify the correlation between juvenile movement and juvenile literature in the given period. Even during his active participation as a leader of juvenile movement, he did not disregard his interest in juvenile literature. He submitted his works that contained various genres including children's songs. Juvenile literature could eventually reach an age of critical system with his help.

Armed with a sense of great responsibility for children, he ardently participated in a variety of literary activities. His juvenile literature started by advocating the innocence of children. He criticized the works that dismissed the realities of the colony, while he demanded the works appropriate to keeping the primitive nature of children. He showed his favor to the works derived from children's concrete living consciousness, while giving a premise of a special periodic condition of a colony. This could be the so-called the logic of 'color and soul of Joseon' and Kim Tae-oh's critical attitudes were formed in his nationalistic and literary dimensions. Therefore, his criticism has been very significant in the history of criticism for juvenile literature.

- key words: Kim Tae-oh, juvenile literature, juvenile movement, innocence, the logic of 'color and soul of Joseon'

\* 이 논문은 2010년 7월 15일 투고되었고, 8월 1일 심사 완료되어 8월 9일에 게재 확정되었음.